

## 스미요시 신사

스미요시 신사에는 바다와 선원의 수호신이자 중요한 신들로 유명한 소코쓰쓰, 나카쓰쓰, 우와쓰쓰(스미요시 3 대 신)를 모시고 있습니다. 일본 신화에 따르면 이들은 창조신인 이자나기가 부정을 씻어내기 위해 물에 몸을 담그면서 탄생한 신들입니다. 이자나기가 부정을 씻어낸 결과 다른 여러 신들이 탄생했는데, 이렇게 탄생한 신들 모두가 이곳에 모여져 있습니다. 일본의 생활과 문화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신도(神道) 신앙에 있어서 정화(淨化) 신화가 지니는 중요성은 일본 전국에 2,000 곳이 넘는 스미요시 신사가 있다는 사실에서도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스미요시 신사가 언제 지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수 세기 동안 수회에 걸쳐 이전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찍이 메이지 천황(1852-1912)이 신도를 국교로 제정하면서 스미요시 신사 등 고대 신화와 관련된 장소에서 참배를 하고 관련 유지 활동을 장려했던 메이지 시대(1868-1912)에는 스미요시 신사의 경내가 지금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스미요시 신사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자, 1914 년에 사람이 직접 객차를 미는 방식의 철도가 설치되었습니다. 1929 년까지 지역 청년단원들이 객차를 밀면서 수많은 참배객들을 신사로 수송했습니다.